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9일 수원지검 출석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민주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 반현법적 행태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현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 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

였다.

앞서 양측은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 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 송원기 기자



과방위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 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겸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실태점검은 필요시 향후 다른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처분이 된 가짜뉴스를 극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 바 있다.

/ 최형철 기자

與 태영호, 이재명 찾아 “내게 쓰레기라고 한 의원 출당시켜라”

실랑이 끝 태영호 떠나자 이재명 “엄청 억울했나 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국회 앞 천막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만나고 있다. 태 의원은 본회의장 애당 의원들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찾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단식 8일 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이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찾

아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자신에게 민주당 의원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태 의원은 대정부질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환경으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

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의 거친 언사가 나왔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이 이날 단식 현장 앞에 나타나자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그를 저지했고 취재진까지 몰려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원이 의원이 “쇼하지 말고 얼른 가라”며 신체 접촉이 벌어지자 태 의원은 “손대지 말라”고 맞섰다.

천막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 대표는 “그냥 놔두라”며 태 의원을 천막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때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흥병도 장군(흉상)을 학대하는데 한때 공산당이었던…(태 의원이) 어떻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 옆에 앉은 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같은 막말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말을 본회

의장에서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게 소리친 박영순 의원을 가만 두면 안 된다”며 “대표께서 책임지고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잖나”라며 박광운 원내대표를 찾아가라고 하기도 했다.

천막 안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태 의원의 항의 방문은 3분 남짓 만에 끝났다.

태 의원의 말을 듣고 만 있던 이 대표는 그가 떠나자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라고 혼잣말했다.

태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하는 조치가 없으면 또 면담을 요청할 것인가’라고 묻자 “등 떠밀려 나오더라도 계속 찾아올 것을”이라고 답했다.

한편, 태 의원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이 각각 단식 현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격려했다.

이정미 대표는 “건강을 챙기라”며 단식을 만류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유찬 기자

공항 보안검색에 3D 판독 CT 도입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3D 정밀 판독과 폭발물 자동탐지 기능을 탑재한 CT(컴퓨터 단층촬영) 엑스레이 활용기기를 보안검색에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 등 국제선 수요가 많은 공항에 이 장비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엑스레이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가려내는 AI 자동 판독 시스템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공항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김포·김해·제주·청주·광주 공항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공사는 이들 첨단 보안검색 장비에 모두 330억원을 투

입하기로 했다. 보안검색 요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엑스레이 판독 능력을 평가해 우수 등급 이상의 요원에게 판독 업무를 맡기고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공사는 최근 전기충격기와 너를 등 금지 물품을 기내에 들고 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작·판매업체와 학교, 여행사 등에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공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물어보안’ 챗봇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성희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추석 선물 30만원까지!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기존



10만원

[설날·추석 20만원*]

현재



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선물에 물품·용역 상품권 포함

기존



물품



현재



물품 + 물품·용역
상품권

* 금액상품권은 제외 (백화점상품권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올해 추석 30만원까지 선물(상품권 포함)이 가능한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원희룡 “KTX내 오염수 관련 홍보물, 내규 위반여부 신중 검토”

국회 국토위…‘양평道 원안 종점도 현장조사 했다’ 지적에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KTX 고속열차 등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전후해 확산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응한 홍보물이 배포된 경위에 대해 “코레일 내규 위반인지 아닌지 추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상당수가 이견이 있는 상황에 이런 홍보물을 KTX에 두는 것은 공익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목적으로 열차 내 간행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코레일 내 규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고침’이라는 제목의 책자 종 7만5천여부를 배포했다. 이들 책자의 열차 내 배치 기간은 이날까지로, 오는 8일부터 회수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장관이 직접 열차 내 홍보물 배치 지시를 했느냐’라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홍보물 배치는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은 데 대해선 “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저는 모든 메뉴가 다 수산물”이라고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월 당시 문재인 정부

도 KTX와 SRT에 정부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는 지적에 “그때 문제 제기를 못 한 야당의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원안 종점의 교각 접속부에 대해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언급에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은 “원안을 도출한 예비타당성조사(20억원이 넘게 투입된) 타당성조사보다 적은 1억원만 투입됐으며, 현장 조사도 없어 부정확한 면이 있다”고 답한 바 있는데, 답변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받자 정정한 것이다. 최훈정 기자



서울 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2025년부터 보증금 300원 부과

서울시가 플라스틱 발생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은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시는 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주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천 753t에서 2026년 2천478t까지 줄이고자 감축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 백도경 기자

정부 “日오염수, 환경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공유 이뤄져야”

“정부 입장 바뀐 것 없다”…온누리상품권, 환급시간 연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런던 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논의되고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 기본 원칙은 지난 정부부터 현재까지 바뀌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투기에



SAMSUNG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Samsung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samsung.com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미지를 즐기 위해 연결된 이미지입니다.

EBS “9월 모평 표준점수 최고점 국어 142점, 수학 143점 예상”

EBS “1등급 컷 국어 최소 88점·수학 최소 88점”



88점, 기하 90점으로 예상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EBSi에 입력된 가채점 수는 12만4천289건으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종로학원이 이날 표준점수 최고점을 예상한 결과 국어 146점, 수학 139점으로 국어는 EBS 예상보다 4점 높았고 수학은 4점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이 예측한 1등급 컷은 국어 화법과 작문이 90점, 언어와 매체가 86점이었으며 수학은 화률과 통계 93점, 미적분 88점, 기하 90점이었다. 진학사는 표준점수 최고점을 국어 141점, 수학 142점으로 EBS와 비슷하게 예상했다.

한편 EBSi가 전날 수험생 1천611명을 대상으로 9월 모의평가 체감 나이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수험생의 절반 이상 (51.8%)이 매우 어렵다고 답하면서, 이번 모의평가에서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은 배제됐더라도 풀기까 까다로운 문제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4.4%는 ‘야간 어려웠다’, 9.7%가 ‘보통’, 3.1%는 ‘야간 쉬웠다’ 등으로 답했다. / 오창민 기자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 반영…현 고1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 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계속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 요소 5개 가운데 전형 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하고,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등 7가지 용어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 조유진 기자

부산 총출동 與, 엑스포 유치 총력 다짐…“부산 이즈 레디”

“엑스포 부산 유치, 尹대통령 의지 확고…전임 정부 팬 부산 출신 대통령이었는데도 적극성 미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부산을 찾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것은 김기현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해외 순방에서 유치전을 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뒤받침하는 동시에, 새만금 세체스카우트 챔버리 파행을 반면교사 삼아 대형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찾아 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북항을 둘러보며 브리핑을 들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지역 의원들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엑스포 유치에 부산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윤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전임 정부 시절에는 부산 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7일 부산시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하늘공원을 방문해 2030 부산엑스포 부지를 살펴보며 북항 통합개발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신 대통령이었는데도 엑스포 유치에 적극

성에 미약했던 점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참석자 전원은 부산엑스포 로고와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습니다) 문구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고 “화이팅”을 외쳤다.

김 대표는 “사우디가 마강한 경쟁국이

긴 하지만 막판에 최대 역량을 집중하면 11월말에 5천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소식

이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며 “수능에서도 마지막 한답이 최종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계주에서도 마지막 한바퀴 스퍼트가 메달 색을 결정하듯 80여일 남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

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금 아세안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 중인데 각국 정상을 만나 부산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고, 곧이어 유엔총회에 가서도 전력투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의 ‘부산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발언을 거론, “아이없어 민주당은 어깃장을 놓으며 부산 시민 가슴에 비수 꽂는 망언을 했다. 그럼에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7대 중점 추진 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포함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의 한 횟집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단체들과 오찬을 한다.

/ 송유영 기자



육사 앞 독립전쟁 영웅 5인 흥상

군 “육사 전신은 국방경비사관학교”

국군 뿐리는 독립·광복군”

국방부는 7일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은 국방경비대사관학교라는 입장을 재차 확

인했다. 전하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육사는 19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해서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조선경비대사관학교를 거쳐서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육사의 정신적 뿐리는 신흥무관 학교인가,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는 질문에 “육사의 정신적 뿐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이희영 선생 등이 개인재산을 털어 중국 만주에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1920년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3천명 이상의 독립전사를 배출했다.

국방경비사관학교는 1946년 5월 서울 태릉에 설립된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지칭한다.

/ 한규성 기자

정부, ‘사무라이본드 700억엔’ 규모

첫 발행…한일경협 물꼬

한일 재무장관회담 후속조치 평균 발행금리 0.7%

일본 현지 투자를 겨냥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일명 ‘사무라이 본드’가 처음으로 발행됐다.

한일 관계 개선에 맞춰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는 해외 동포와 국내 거주자 대상이었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담의 후속조치 성격이기도 하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100여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복원에 합의했고, 일본 투자자들

에게는 일본 현지에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서 금리가 낮은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외환보유액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외

환보유액 통화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동 금융기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평채는 3·5·7·10년 만기로 나뉘어 발행됐다. 평균 발행금리는 0.70% 수준이다.

/ 이성준 기자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한화생명



강서구청장 김태우 재공천설에

민주당 서울시당 반발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7일 내놓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 전 구청장을 사실상 내정했다”며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를 재공천하기 위해 집권세력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무죄’라며 ‘현실부정’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특별사면은 입증된 범죄

에 대해 사법부가 결정한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복권해주는 정치적 행위이지 결코 무죄 선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보궐선거를 유발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를 멈추고 겸손한 태도로 국민 앞에 거듭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당 입장문을 공식화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구청장 공천이 사실상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개월 만인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 박현욱 기자

野 “국방장관 ‘채상병 수사’ 위법 개입”…해임 건의·탄핵 추진

진상규명 특검법도 발의…與 ‘김태우 재공천’ 관측엔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폐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현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는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해임 건의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곧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이 모두 주권

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발언도 거듭 문제 삼았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사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을 향해 “미쳤잖아요. 그 양반. 그분이야말로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도 공세를 가했다.

우상호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의원은 “결국 윤심(尹心)을 거역하지 못하고 승복한 모양새”라고 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과거 대검 감찰을 통해 건설업자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인사 청탁을 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하고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징계만 받았다”며 “검찰이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김관우 기자

140억대 상품권 사기…인터넷카페 운영자 “돈 돌려주려 했다”

법정서 혐의 부인…피해자들 “사과 한마디 없어” 엄벌 촉구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여)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범행은 부인하고 유사수신 행위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상품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사기 범행 편취금이라고 된 피해 금액을 구해주거나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단 한번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오



인터넷 카페 운영자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송원기 기자



취재진에 둘러싸인 윤미향 의원

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범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구

성원을 만났다가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년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전날 넘겨 받아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 임희성 기자

‘우크라 참전’ 이근, 무면허 운전해 경찰서 갔다가 적발



에 입건돼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지난해 7월 뻬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려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불어 범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씨는 이로 인해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는 상태이다. / 남현우 기자



전장연 “폭력적 연행…국가 상대 손배소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법 제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박정민 기자

다.

박 대표는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법 제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의 활동지원 사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박경석 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원고로 참여하고 소송가액은 3천만 100원이다. / 박정민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0만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즉각 철회하라!

일시: 2023. 9. 7.(목) ◇ 군산시의회

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전체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SOC 분야 예산 증가율은 4.6%로 국가 예산 증가율인 2.8%를 훨씬 웃돌고 있다”면

전북 군산시의회가 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30년 넘게 일궈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6천 625억원 중 78%를 삭감하고 1천 479억원만 반영함으로써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큰 차질을

/ 신재일 기자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 이용 가능시간 : 08: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하자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깎인다…중처법 유죄땐 10% 감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대폭 개편…안전·품질평가 강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아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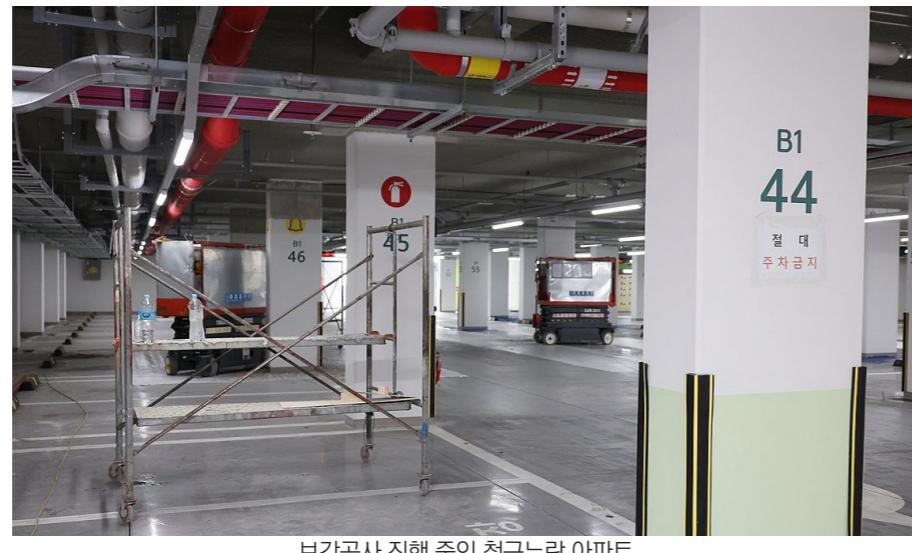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는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ESG 경영·준



보강공사 진행 중인 철근누락 아파트

법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을 추가하겠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키웠다.

별도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이와 함께 발주처의 시공평가(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가 낮으면 2~4% 감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받으면 2~4% 가점을 준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폐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고, 실적액의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실적액의 최대 4% 감점, 25%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 가중치는 유지하되,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비판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는 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는 1.21%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간 상위 기업이 자본금 등이 반영되는 경영평가를 과도하게 높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보정되는 것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선 공사실적 비중이 36.3%, 경영평가 비중이 40.4%를 차지했는데, 평가 기준 개편안을 적용해 올해 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공사실적은 38.8%로 늘고 경영평가는 36.7%로 줄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이렇게 대폭 개편하는 것은 2014년 개편해 2015년 평가에 적용한 이후 9년 만이다. 개편안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송진영 기자



몽골 이마트 1호점

몽골에 첫 '미래형 이마트'

울란바토르 4호점 개점

이마트는 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4호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2019년 3호점이 문을 연 이래 4년 만에 내는 신규 매장이다.

4호점은 매장 공간 구성부터 판매 상품, 입점 테넌트(임대 매장)까지 '한국 스타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테리어는 미래형 매장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이천 연수점을 본떴다.

연수점처럼 테넌트를 강화해 종합쇼핑몰을 구현한 게 특징이다. 매장 내 의류 전문 매장과 서점, 푸드코트, 프랜차이즈 식당, 키즈카페 등이 들어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탑텐은 이마트 4호점을 통해 몽골에 두 번째 매장을 열고,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 치는 처음 몽골에 진출하게 됐다.

델리 코너에서는 김밥, 떡볶이 등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을 즉석조리 메뉴 형태로 판매해 특히 젊은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이밖에 감자칩, 버터쿠키, 쌀과자, 물티

슈 등 현지인이 즐겨 찾는 '노브랜드'(이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을 필두로 한국산 상품도 대거 선보인다.

올해 1~7월 이마트 1~3호점의 노브랜드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늘었다. 이마트는 이러한 노브랜드 성장세가 제조사인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몽골 현지 기업인 알타이그룹과 협약을 맺고서 2016년 울란바토르에 1호점을 냈고, 2017년 2호점, 2019년 3호점을 차례로 개점했다.

이마트가 브랜드 및 상품, 점포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큰 몽골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형 쇼핑'의 즐거움을 소개할 것이며 '이마트가 울란바토르를 대표하는 쇼핑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 매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남정희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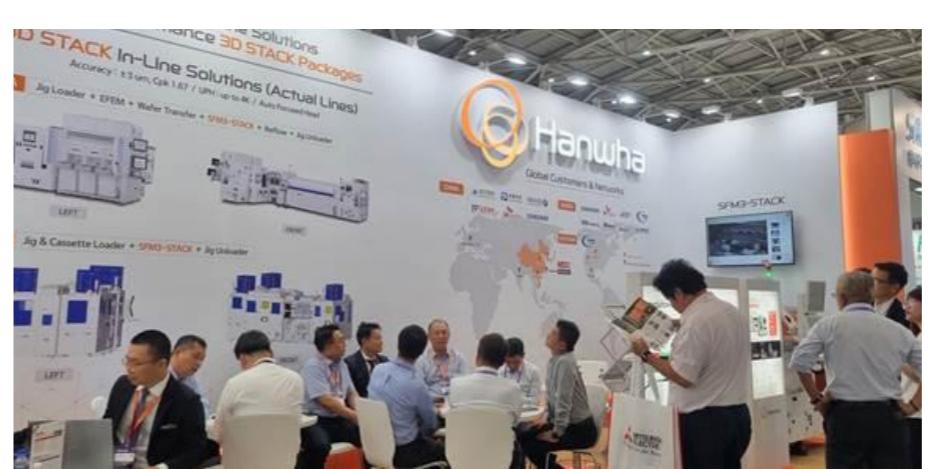
아직도 주유할 때 지갑 꺼내세요?

energy plus 앱 다운받고 바로주유 하세요

앱 바코드만으로 주유, 결제, 할인, 적립까지 한 번에!

한화정밀기계, '세미콘 타이완'서 첨단 반도체장비 선봬

어드밴스드 패키징 구현 3D 스택 솔루션 첫선…HBM 제작 등에 활용



한화정밀기계는 현재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 중인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3'에 참가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이번 전시에서 어드밴

스드 패키징을 구현할 수 있는 '3D 스택 인라인'(3D STACK In-Line) 솔루션을 소개했다. 한화정밀기계가 출품한 3D 스택용 플립칩 본체 'SF3M-스택'은 반도체 다이(전자 회로가 접적돼 있는 IC칩)를 초

정밀·고속으로 적층해 부착하는 핵심 장비다.

3D 스택은 여러 개의 다이를 수직으로 쌓고, 전도성 물질을 이용해 다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반도체 칩을 더 작고 얕게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에 대량 탑재되는 서버용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3D 스택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업계는 미세화 공정의 한계를 후공정으로 극복해나가는 추세"라며 "이번 전시회를 교두보로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리더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권현준 기자

추석 전 택배물량 평소보다 17% 증가 예상…4주간 특별관리

배송기사 등 임시인력 7천100명 추가 투입…'택배 미리 보내기' 캠페인도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택배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8일~다음 달 14일 4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관리기간에는 택배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택배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마다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왔다.

올해 추석은 앞두고서는 평소(지난 7월 평균)보다 택배 물량이 하루 1천500만 박스에서 1천750만 박스로 약 17%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특

별관리기간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 현장에 간선차량 기사 1천800명, 상하차·분류인력 2천800명, 배송 기사 1천100명, 동승 인력 1천400명 등 임시인력 7천1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나아가 국토부는 물량 폭증 예방과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추석 택배를 미리 보내도록 권장하는 '미주단' 캠페인을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으로 진행한다. 명절 선물 주문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회를 제한해 종사자들에게 총 6일(이달 28일~다음 달 3일) 휴식을 보장할 예정

이다.

택배사들은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 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해 지역 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균성 기자

쓰레기 소각장에 성난 마포구민들 서울시청 앞 집회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확정된 데 불만을 품은 마포구 주민들이 7일 중구 서울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는 이날 낮 12시 서울광장 동편에 모여 "소각장 결정 고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가 지역주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채 소각장 신설을 밀어붙였다"면서 "이처럼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통 행정 규탄한다, 결정고시 철회하라', '주민 기만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동참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각장 신설) 예산 반영을 막아내고,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을 기반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각 구에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투본은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서울광장과 시청을 한 바퀴 돌며 행진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으로 보내던 1t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추가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 김희진 기자



휑한 퍼레이드 꽉 막힌 도로

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이 퍼레이드는 음악극 축제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 혼잡 등 시민에게 불편을 줘 빙 بص을 사

기도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 오후 상가 밀집 지역의 왕복 6차로를 12시간 넘게 막아 교차로와 상가 인쪽 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노선버스가 우회하려다 막혀 좁은 도로를 후진하는 등 시민 향기가 빛났다. 축제 준비 단계부터 재단 안팎에서 이런 우려로 퍼레이드 반대가 많았다.

2007년과 2012년에도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됐으나 축제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시민 불편 등으로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단은 김동근 시장 취임 후 첫 음악극 축제에 의정부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한다며 거리 퍼레이드를 강행했고 결국 특례 의혹까지 제기됐다.

음악극 축제 예산 7억2천만원 가운데 3억원이 개막식과 퍼레이드에 사용됐고 해외 초청 공연은 빠졌다. / 송진경 기자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개막…9일까지 회의·전시·상담 진행



최신 바이오산업 정보를 교류하고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2023 경북 바이오산업엑스포'가 7일 포항에서 개막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9일까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다.

엑스포는 개막행사를 비롯해 전시회, 국제 심포지엄 및 회의, 기업 투자·수출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행사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루크리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는 'K-바이오테크놀로지의 비전'을 주제로 예방적 정밀의학을 통해 인유 건강증진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경북도, 포항시, 한국동물약품협회,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앱, 진셀바이오텍,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 등 14개 기관은 '동물용 의약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엑스포 기간에 포스코국제관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다양한 회의가 진행된다.

'제5회 기술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 '2023 그린바이오 산업 국제콘퍼런스' 등을 통해 80여명의 국내외 저명인사가 다양한 주제로 발표한다.

행사 기간에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는 전국에서 참가한 70여개의 바이오기업과 기관들이 시제품이나 자료를 제공한다.

/ 이찬욱 기자

천안타운홀 전망대에 첨단기술 활용한 야경 볼거리 생긴다



람객에게 천안과 관련된 이야기 콘텐츠를 첨단 영상 기술과 접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미디어아트는 '디지털 천안 8경, 천안의 야경을 수놓다'라는 주제로 천안의 밤 풍경에 수놓아지는 천안 8경과 불꽃놀이 등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프론트 특수 필름'을 적용해 감각과 감성을 모두 자극하는 몰입감 높은 콘텐츠를 구현한다. 1억원을 들여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미디어아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미디어아트가 천안시가 추진하는 '신 야간경제'와 관광을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타운홀 미디어아트 구축으로 새로운 야간관광 명소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황유식 기자

‘매주 수요일은 수산물 데이’

경남 고성군, 시장 장보기 행사



군은 앞으로 수요일마다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지역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열 계획이다.

군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구내식당 메뉴를 수산물로 준비한다.

이날은 가리비 무침과 조기구이, 미역국이 점심 메뉴로 올랐다.

고성군수협이 군 수산 특산물인 가리비를 시식용으로 제공한다.

군은 또 군청과 유관기관 등 직원들이 지역 수산물 음식점에서 식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안전하고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제6회 인천 퀴어축제 9일 개최 부평역 일대 혼잡 예상

인천경찰청은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오는 9일 부평역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인천퀴어축제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부평시장 라터리 인근에서 열리며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거리 행진(페레이드)도 펼쳐진다.

거리 행진 참가자들은 부평역 인근 MRT 타워 앞에서 출발해 부평시장, 부흥오거리, 굴다리오거리로 지나 출발 장소로 돌아온다. 당일 비슷한 시간대 부평역 인근에서는 기독교 단체의 퀴어축제 반대 집회도 열린다.

경찰은 행사 참석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는 시간대에 차량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교통경찰관 160여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차 16대와 오토바이 14대 등 투입해 교통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 오은성 기자

AI to [Everywhere]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내 손안의 AI 친구 A.(에이딧)

AI로 하늘길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UAM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사피온

AI 기반 등을 진단 서비스, X Caliber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체리빔플러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미디어 AI B TV까지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

1~3라운드 지명권 6장 카운트...‘이정후 뽑은’ 2017년 재현할까

키움, 2017년 드래프트에서 이정후·김혜성·김재웅 지명

키움 히어로즈는 당분간 성적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 ‘원나우’보다 미래를 위한 ‘리빌딩’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내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핵심 야수 이정후는 발목 부상으로 수술 받아 올 시즌을 마감했고, 에이스 안우진 역시 팔꿈치 인대 접합(토미 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후의 수술이 확정된 직후 국가대표 출신 선발 투수 최원태를 내보내고 LG 트윈스로부터 외야수 이주형과 2024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은 키움은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대 14명을 지명 할 수 있다. 구단의 미래를 위해 트레이드로 지명권을 3장 확보한 결과다.

2022년도 성적 역순으로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지명하는 이번 드래프트는 팀당 최대 11명씩 데려갈 수 있다.

여기서 키움은 LG와 트레이드를 통해 1라운드 지명권 1장, 포수 주효상을 KIA 타이거즈로 보내며 받은 2라운드 지명권 1장, 내야수 이원석을 트레이드로 영입할



작년 신인드래프트에서 키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때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확보한 3라운드 지명권 1장이 추가로 있다. 덕분에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1라운드부터 3라운드 까지 선수를 1명씩 더 뽑을 수 있다.

이번 드래프트는 뛰어난 기량을 갖춘 투수가 많은 게 특징이다.

최대어 장현석(마산용마고)은 메이저 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했으나 황준서(황준서), 조대현(강릉고), 육선엽(장충고), 원상현(부산고) 등 강속구와 제 구력을 갖춘 선수들이 구단의 선택을 기

다린다. 키움 구단 역사상 최고의 드래프트로 손꼽히는 해는 2017시즌이다.

그해 1차 지명으로 데려온 이정후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선수로 성장했고, 2차 1라운드 지명 선수인 김혜성 또한 리그에서 손꼽는 내야수가 됐다. 여기에 6라운드에서 뽑은 투수 김재웅은 착실하게 성장해 2021년부터 팀 핵심 불펜 투수로 활약했고, 지난해에는 마무리 투수로 한국시리즈까지 경험했다.

키움이 이번에 뽑은 선수가 2024시즌

부터 전력에 곧바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데뷔 첫해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선수도 있지만, 이례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정후와 안우진 없는’ 2024시즌을 앞둔 키움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가 이들의 공백을 채울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동안 전력을 두껍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처지라 최대 16명을 뽑을 수 있는 이번 드래프트가 향후 구단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령화 키움 단장은 위낙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티라 드래프트 전략에 대해 말을 아꼈다.

키움의 첫 번째 지명은 LG가 보유했던 1라운드 전체 8번이며, 곧바로 원래 구단 놓인 1라운드 9번 지명권을 행사한다. 2라운드에서는 전체 16번과 19번, 3라운드에서는 24번과 29번이다.

고 단장은 “우리의 첫 번째 지명 순서가 8번이라 현재로서는 다른 구단의 지명에 따라 지명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U-24 아시안게임 축구 황선홍 감독

‘골잡이 출신’ 황선홍에게 던져진 올림픽·AG대표팀 ‘공격 고민’

선수 시절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황선홍 감독이 동시에 이끄는 2024 파리 올림픽 대비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과 황제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모두 ‘공격 고민’을 겪고 있다.

황 감독은 경남 창원에서 올림픽 대표팀과 황제우 아시안게임을 모두 소집해 훈련을 지휘하고 있다. 올림픽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1차 관문에 해당하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예선에 들어갔다.

두 팀을 오가며 U-23 아시안컵 예선과 아시안게임 경기를 연이어 치러야 하

는데, 빼곡하게 이어지는 실전의 첫걸음부터 만만치 않다. 올림픽 대표팀이 6일 U-23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에서 카타르에 예상 밖의 0-2 패배를 당하면서 출발부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자국에서 U-23 아시안컵 본선을 개최하는 카타르와의 대결이 친선경기로 간주하면서 예선 순위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로 황선홍호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잡지 못했다.

골키퍼의 실수 등으로 허무하게 실점 한 수비도 아쉬웠지만, ‘강호’라고 부르기엔 어색한 카타르를 상대로 안방에서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한 채 졌다는 점이 더욱 당혹스럽게 다가온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슈팅 10개, 유효 슈팅 2개로 모두 카타르(슈팅 12개·유효 슈팅 5개)보다 적었다. ‘광주FC 듀오’인 최전방 공격수 허율과 측면 자원 엄지성의 호흡이 초반에 번뜩였고, 실점 이후 공격

/ 권종수 기자

호날두 “메시와 더 이상 라이벌 아냐...각자의 길 걷는다”



사를 바꿨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메시와 호날두를 두고 ‘당대 최고’를 뜻하는 ‘GOAT’(The Greatest Of All Time) 논쟁을 해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최고의 축구선수라는 타이틀을 두고 늘 비교선상에 올랐다.

축구계를 양분하던 호날두와 메시는 현재 유럽 무대를 떠나 있다. 호날두는 지난해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와 계약을 맺었다. 메시는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떠나 미국프로축구인터마이애미의 분홍색 유니폼을 입었다.

이제는 메시와 경기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힐 기회가 더욱 줄어든 탓인지, 호날두는 ‘페-호’로 묶이는 것에 불편한 기색

을 드러냈다.

호날두는 “유럽 무대든 아니든, 메시는 메시의 길을 갔고, 나도 나의 길을 걸어왔다”며 “축구 선수로서 우리가 쌓은 유산은 계속되겠지만, 라이벌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5년 동안 같은 무대를 누렸다”며 “비록 우리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없고 친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프로 축구 선수이자 동료로서 서로를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날두는 이날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포츠볼이 발표한 올해 발롱도르 후보 30명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 명단에는 메시, 엘링 훌란(맨체스터 시티·노르웨이),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잉글랜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 이성수 기자



노스페이스, 황제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단 공식 단복 지원

영원아웃도어 노스페이스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황제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착용할 공식 단복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노스페이스는 황제우의 습한 기후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복의 기능성을 강화했다. 공식 단복 15개 품목 중 13개에는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했다.

또 대표단 단복을 본따 만든 레플리카 컬렉션을 출시하고 공식 온라인몰 등에서 한정 판매한다.

/ 이찬우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김히어라, 학폭 의혹에 “사실과 달라…강력 대응할 것”

배우 김히어라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히어라의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6일 “김히어라 배우가 상지여중 재학 시절 친구들끼리 만든 ‘비상지’라는 카페에 가입해 그 일원들과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 제기된 의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히어라는 일진 활동을 한 일이 없고 일진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한 일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히어라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

려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이날 김히어라

가 중학생 시절 갈취와 폭행으로 악명 높은 일진 모임의 멤버였고, 그가 후배의 돈을 빼앗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램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보도 전 김히어라가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직접 설명했다며 “언론사에 연락한 제보자들이 김히어라 배우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착오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론사와 배우 모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들이 오해를 풀고 배우에게 사과했고 언론사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며 “그래서 오해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히어라는 오는 9일 방송될 쿠팡플레

이의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 4에 호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학폭 의혹이 보도된 후 결방이 결정됐다.

쿠팡플레이이는 이날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SNL코리아 시즌4 9회는 결방된다”고 공지했다. 7일로 예정됐던 9회 방송분 촬영도 취소됐다.

2009년 뮤지컬 무대로 데뷔한 김히어라는 이후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학폭 가해자 이사라를 연기해 이름을 알렸고,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펀치’에도 출연했다.

/ 이성윤 기자

원주시민 뿐났다…1천여명 시사회장서 영화 치악산 제작사 규탄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거부분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원주시민 1천여명이 영화제작사 규탄에 나선다.

원주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7일 오후 6시 30분 영화 치악산 시사회가 열리는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치악산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인해 치악산의 이미지 실수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치악산한우, 치악산배, 치악산복숭아 등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김정윤 시 사회단체협의회장은 “치악산에서 촬영하지도 않았음에도 허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영화 상영을 강행하는 영화제작사를 규탄한다”며 “상영금지 거부분이 한시라도 빨리 인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과정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거부분 신청 사건 첫 심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박주현 기자



영화 ‘잠’의 한 장면

유재선 감독, 영화 ‘잠’, ‘오펜하이머’ 제치고 1위로 출발

유재선 감독이 연출한 영화 ‘잠’이 개봉과 함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잠’은 개봉일인 전날 7만9천여명의 관객을 모아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44.9%다.

이 영화는 신훈부부인 수진(정유미)과 현수(이선균)의 이야기로, 현수가 몽유병에 걸린 듯 한밤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물

이다. 봉준호 감독의 제자로 통하는 유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오펜하이머’는 전날 1만9천여명(매출액 점유율 12.8%)이 관람해 2위로 밀려났다. 지난달 15일 개봉과 함께 정상에 오른 이 영화는 개봉 23일째에 1위를 내줬다.

가수 이승윤의 신곡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는 개봉일인 전날 3천500여명(2.0%)을 모아 8위에 올랐다.

/ 채희서 기자



에스파, 美 ABC ‘굿모닝 아메리카’ 출연 “사랑과 응원 감사”

걸그룹 에스파가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ABC방송 유명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GMA)에 출연해 신곡 ‘베터 싱스’(Better Things)를 선보였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에스파는 미국 뉴욕 GMA 스튜디오에 생방송으로 출연했다. 에스파의 팬들은 새벽부터 스튜디오 인근에서 늘어섰다. 멤버 지젤은 진행자가 출연 소감과 어간다.

/ 최은희 기자

이충현 감독 ‘발레리나’ 내달 넷플릭스 공개…전종서 주연



넷플릭스는 이충현 감독의 영화 ‘발레리나’를 다음 달 6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경호원 출신 옥주(전종서 분)가 소중한 친구 민희(박유림)를 죽음으로 몰아간 죄 프로(김지훈)를 풀으며 펼치는 아름답고 무자비한 복수극이다. 이 감독의 연인 이자 전작 ‘콜’(2020)에서 호흡을 맞춘 전종서가 무술에 능한 주인공 옥주를 연기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수여 연기상을 선보인 박유림이 옥주에게 복수를 부탁하는 발레리나 민희 역을 소화했다. ‘발레리나’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부문에도 초청돼 스크린으로도 상영된다. / 김명석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osco
INTERNATIONAL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하나은행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

중소법인 고금리 차주 금리 인하 프로그램

지원대상 중소법인, 기한연장 시

지원내용 금리가 7%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p까지 금리 감면(최대 7%까지)

중소법인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일정 신용등급 이하 & 비외감 중소법인 & 신용대출, 기한연장 시

지원내용 매월 7%를 초과하는 이자납입액 만큼 이자환출 & 원금상환 지원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대상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연체이자 납입 시

지원내용 연체 중인 여신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3% 적용 면제

청년 창업자 금리 우대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창업일로부터 만7년 이내 & 만20세~만39세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차주별 10억원 이내 & 신규대출 취급후 1년간 0.7%P 금리우대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권 고금리(7%초과)대출 이용중인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차주별 1억원 이내 & 취급후 2년간 최대 5.5% 고정금리, 2년이후 변동금리 적용

외식업자/도소매업자 이자캐시백 프로그램

지원대상 외식업/도소매업 개인사업자가 보유중인 하나은행 기업대출

지원내용 기업대출 잔액(최대 1억원 한도)의 1%를 1년간 월단위 캐시백

※ 프로그램 별 상세 지원 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5055호(2023.07.21) / CC브랜드 230719-0180